과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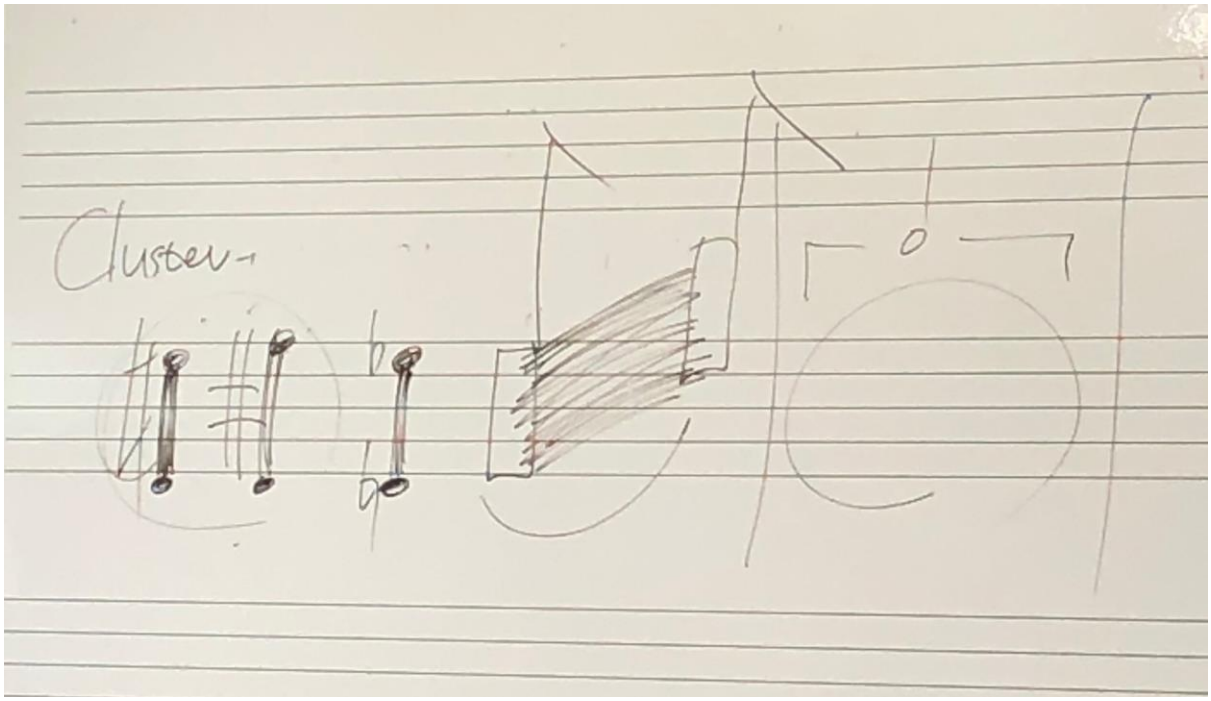
현대 주법을 주로 사용하더라도 현대 주법만 남용하지는 않을 것

PDF 파일로 변환하여 moonheelee1108@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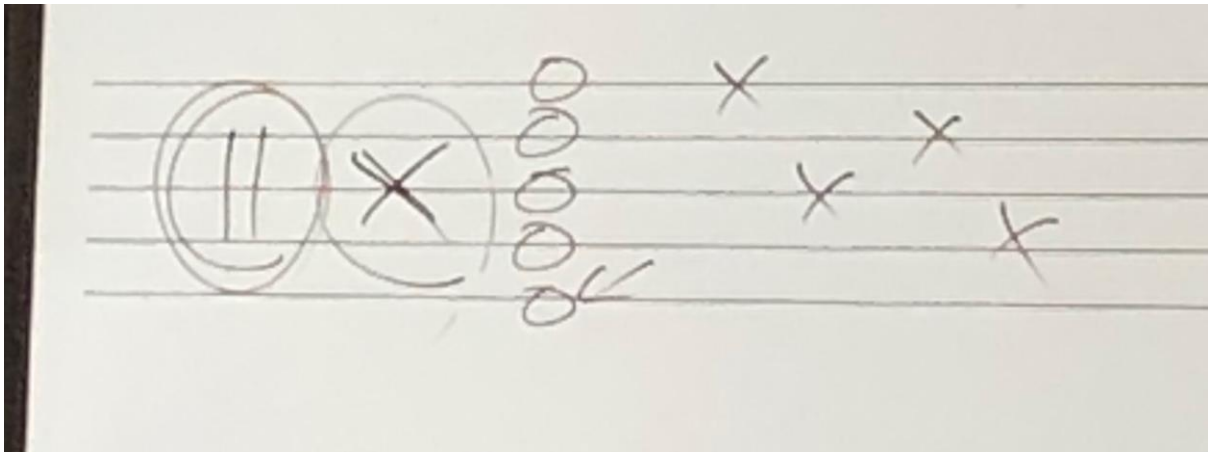
메일명은 <연주매체특강피아노리딩과제제출 학번/이름>

클러스터나 **글리산도**(또는 둘의 합)가 곡 사이 사이에 나오는 건 괜찮은데 너무 aggressive하게 나오면 연주자가 아프기 때문에 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한다면 부드러운 면장갑(손 끝만 잘라서)을 사용하도록 함

건반 아래를 치거나 피아노 뚜껑을 위로 올려서 칠 때 페달을 밟아서 하면 더 잘 울리는데, 좋은 홀의 스타인 웨이 피아노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아노를 닫거나 (이것도 안 되는 경우 O) 그것도 안 된다면 손바닥으로 피아노 건반벽을 치면 비슷한 소리를 연출할 수 있다.



모든 그래픽 악보는 연주자와 충분하고 명료한 합의를 우선으로 한다.



<피아노에 타악기적 요소를 활용할 경우 기보>

Staccato를 치자마자 sustain pedal을 눌러서 여음만 울리게 할 수 있다.

(페달을 누른 상태로 stacc.을 하는 것과 구분!)

Pedal을 강하게 밟거나 강하게 떼면서 Accent를 줄 수 있다.

Sustain Pedal을 밟은 채로 연주하는 '동시에' Una Corda 페달로 Accent를 줄 수 있다.

현대음악에서는 Damper Pedal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명확히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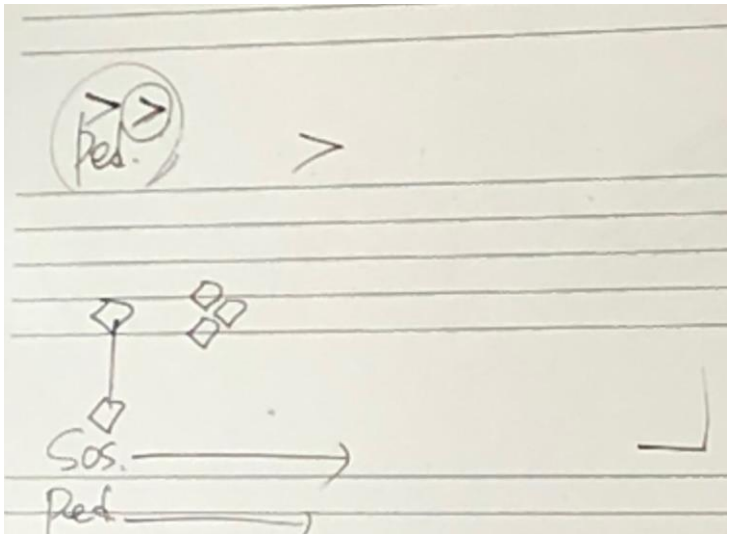
1, 2, 3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u.c. / sos**. / (그냥 페달 표시) 등의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화살표는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지속할 것을 명시

Sos. 페달과 Damper 페달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페달을 타악기적으로 사용하겠다면 오선보 보다는 별도의 공간에 표시할 것.

아니면 기호화된 페달 모양에 accent 표시를 주어도 된다.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음악이 시작되기 전 박자표 전에 **묶음 클러스터**는 명료하게 표시를 해 주어야 한다. **명료한 Information** 항상 상기할 것!



교수님 안녕하세요?

피아노 **Inside** 기타 **peak**로 튕겨 소리내면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한 소리가 난다.

그러나 빠른 passage를 연주할 경우 peak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Card**(네 신용카드 학생증 교통카드 그렇습니다)를 사용하면 된다. 조금 더 뭉툭한 소리가 난다.

둘 다 플라스틱 재질인데 왜 소리가 다르게 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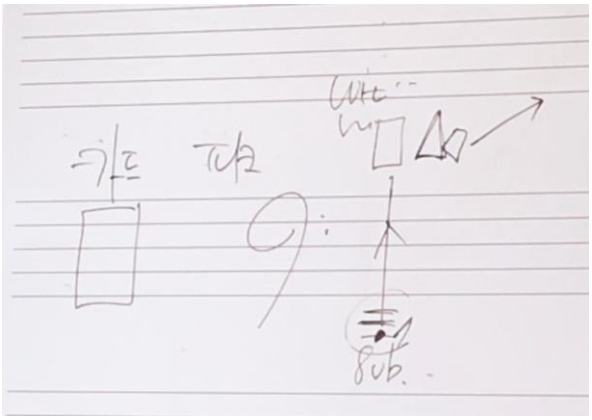
Peak가 물리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타를 칠 때도 피크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다.

Card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며 흔들리기 때문에 마찰되며 나는 떨리는 소리의 전달력이 크다.

뜯는 소리를 원한다면 Peak, 그러나 조금 더 소음이 가미된 소리를 원한다면 Card.

Inside는 현을 뜯는 것이기 때문에 타악기 보표로 기보할 필요가 없으며 원하는 음역을 표기하면 된다.

한 현 위에서 움직이고 싶다면 글리산도와 표기 주의할 것!



위에 무엇으로 긁을지 표기해줄 것. 물론 제3의 재질(고무, 철 등)도 사용 가능하다.

Mallet으로도 **Inside Glissando** 가능

고무가 아닌 실로폰 말렛 재질이면 타다닥! 소리 난다

Inside도 위치별로 소리가 다르다.

망치를 사용하고 싶다면 꼭! 고무망치를 사용할 것

프레임을 치면 되는데 물론 프레임도 소리가 다 다르게 난다.

Mallet 또한 명료하게 명시를 해줄 것!

Pitch가 없는 타악기적 활용과 현을 쳐서 음을 내는 방법 둘 다 가능

'무엇으로 어디를 치겠다'가 제일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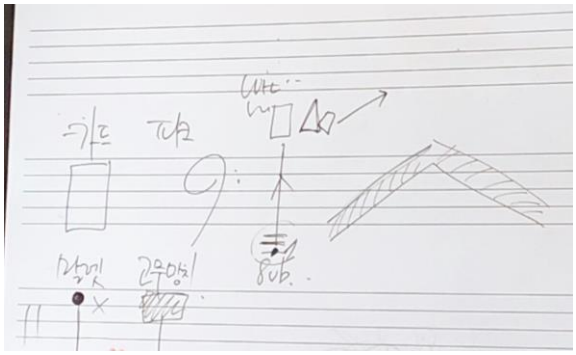
Tuning Pin을 문지른다면 결국 Glissando적 활용이기 때문에 방향을 표시해주어야 함

Low / Middle / High 로 **Frame** 위치 표시 (작곡가마다 다르다)

위 말고 옆을 할 것이라면 '고무 망치로 프레임의 옆면을 칠 것'이라고 명기

브러쉬도 가능

Inside 거품기 소리 개쩐다



고무(블루 택)로 현에 고정시켜 놓고 건반으로 연주하면 짱신기함

프레임 뒤쪽 현에 고정하고 연주하면 더짱신기함 하모닉스 소리도 살짝 남

종이 테이프(종이여야만 한다.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로 Prepared Piano

틱틱거리는 소리가 난다.

Prepared Piano는 악보에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표기해야 한다!

Prepared Piano라고 note head가 바뀌진 않는다.

미리 세팅되었다고 공지된 상황이니까 종이 테이프를 붙여서 틱틱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x로 note head를 그릴 필요는 없다는 소리다.

브러쉬나 거품기는 현에 Direct로 하는 것이니까 다른 경우.

E-bow (Electric Bow)

소리 영롱하고 예쁘고 개 쩐다는데 학교 피아노 녹슬어서 소리 안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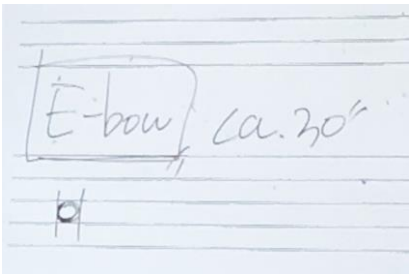
1년에 천 만원을 내는데 피아노가 녹슨 학교가 있다?

그 현의 pitch대로 전자음이 난다.

E-bow는 대부분 '몇 초 정도 유지해라' 이런 식으로 표기.

유지하는 공명을 듣고 싶은 것이니 리듬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e-bow 전에 충분한 시간 꼭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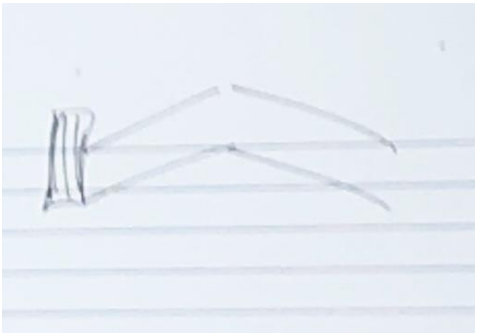
자전거 바퀴 고무로 현을 긁으면 호에엥하는 소리가 난다

Superball Mallet으로 건반 벽면 긁으면 우에엥하는 소리가 난다. (마찰되면서)

진짜 필기 교양 넘친다

결국 Glissando처럼 표기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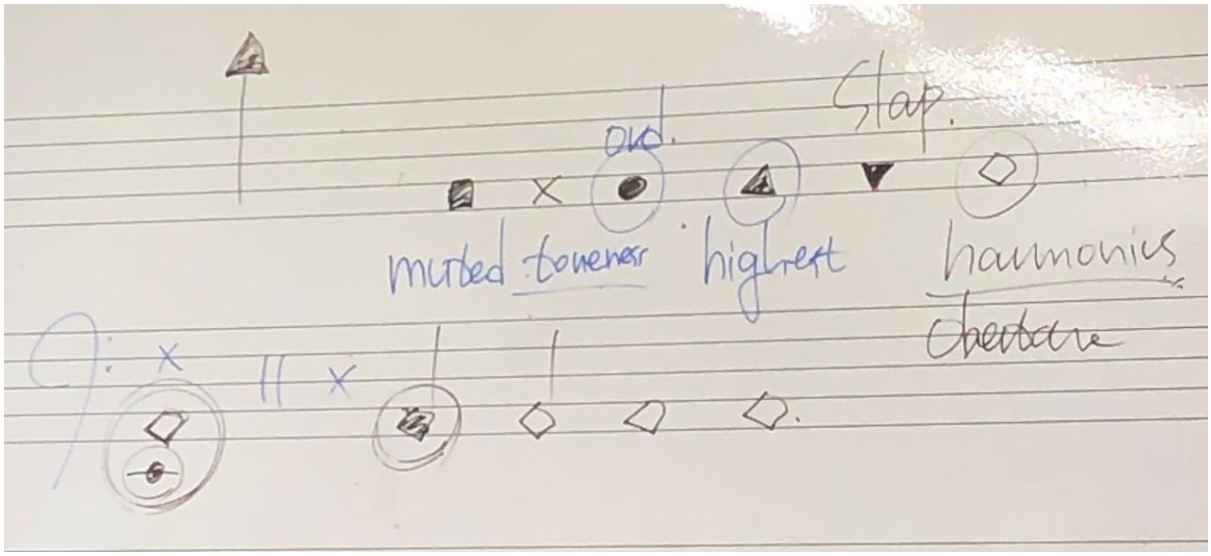
여러 현을 긁을 거면 음분 클러스터처럼 표기



한 현을 긁는 경우는 드물다 (여러 소리가 뒤섞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고무는 저음 불가

Note Heads



1. Muted, 또는 변형되어진(ex.아그라프에 손을 댄 채로)
2. 소리가 없는, 타악기적 소리의 (Percussive) – 음표 Clef에 x note head와 타악기 보표에 x note head하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Flute의 Key Click을 생각해보자
3. 가능한 한 높은 음. Violin이나 Flute, Vocal처럼 개인차가 있는 악기에 사용. 당연히 피아노는 부적절하다.)
4. Slap (예외적으로 Slap을 1번 note head처럼 표기하는 사람도 있다.)
5. Harmonics, Overtone - 4분음표 이하는 검은색

*라헨만 – 꼬리 있는 것은 다 pizzicato

*notation note를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은 기본이고 혼선이 없도록 중간 중간에 각주

*실도 prepared 개념 (미리 세팅해야 하기 때문에)